

##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 : 사도행전 9 : 1~30

요절 : 사도행전 9 :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방인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 교회역사가 이방선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물줄기가 이방세계로 향하도록 하시는데, 그 중심에 바울의 회심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역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2 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1,2)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통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하고 박해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주의에 물든 유대인들은 랍비문학과 구전율법을 모세의 권위와 동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란 유대교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이단의 무리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있었는데, 이 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각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특히 당시 지중해 연안의 대도시였던 다메섹으로 많은 유대인 기독교신자들이 박해를 피하여 이주하였습니다. 초대 기독교 신자들은 유대인들의 신앙공동체인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을 압수수색할 공문을 청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결박하여 잡아 예루살렘으로 송환하려 했습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24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말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리

스도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동족을 배반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무너뜨리며, 이단의 우두머리인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사이에는 뿐리 깊은 반목과 갈등의 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경륜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3)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 km의 먼 거리였습니다. 사울 일행은 약 일주간의 여행을 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밝은 빛으로 인하여 땅에 엎드러졌는데, 이 때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펫박하느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놀라고 두려워서 “주여 뉘 시오니이까?”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다시 소리가 들리기를 “나는 네가 펫박하는 예수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허무맹랑한 이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청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거니,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났다느니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과 살기에 차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초자연적인 강력한 빛에 굴복 당하였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펫박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네가 펫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14:18)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박해받는 성도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성도들안에서 살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에서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25:35~40)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 시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한 편에서는 아나니아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10)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사울은 아나니아를 소개하기를 그는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경건한 사람(a devout man according to the law)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주께서 아나니아를 환상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11,12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11,12) 하나님은 한 편으로는 사울에게 환상을 주셔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나 성령의 일하시는 방식이 매우 주관적이고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는 매우 구체적인 사건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나니아에게 직가(直街,strait street)로 가라고 구체적인 거리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 다소사람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사울이 기도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하는 기도 내용과 응답받은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신기하

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나니아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13,14절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13,14) 아나니아는 왜 하필 사울에게 찾아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인물입니다. 또 그가 다메섹에 온 이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여 잡아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시니 아나니아로서는 얼른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5,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15,16)

첫째, 예수님은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15)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울 역시 자신을 여러 번 소개하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사명을 위해 5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였으며, 마침내는 로마감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에 이릅니다. 사울의 일생은 그야말로 이방선교를 위해 자신을 드린 일생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방선교에 나서기 전까지 초대 기독교는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회심을 계기로 복음의 물줄기가 이방세계로 흐르게 됩니다. 사울의 회심사건은 유대인 공동체에 머물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배경에서 볼 때 사울은 이방선교를 위해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베냐민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한 율법학자였습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일찍부터 헬라철학과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가말리엘 문하에서 헬라철학과 히브리 문학을 공부한 지성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당시 학문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었던 헬라와 히브리 철학을 섭렵하였습니다. 또 그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졌는데, 로마군대에 필요한 천막제조에 기여한 공로로 로마시민권을 얻었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울의 로마시민권은 당시 로마제국 아래서 이방인 선교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울은 천막제조업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개척 당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던 염색업자요 사업가였던 루디아를 이방선교의 동역자로 얻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선교에 준비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둘째로, 주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시키시고 부르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간절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착고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사울은 유대인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죄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행28:20b)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선교사명은 결국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9:1,3),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롬10:1) 이처럼 그는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뜨거운 동족애가 있었고, 유대교 전통에 대한 궁지가 있었으며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큰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인류구속 계획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백성 삼으신 목적이 세상만민

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으로 세계만방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민의식과 유대교의 전통에 사로잡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이방세계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11:25,26a)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려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비로소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간절한 사랑으로 불타는 사울을 택하시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데는 이방인의 구원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에 대한 동족애로 충만한 사울을 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고 이사му엘 선교사님은 한국과 한국민족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분입니다. 한번은 WMR에서 전통한국 의상을 입고 나와 부채춤을 추는 장면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을 세계선교 일선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미국시카고로 선교사로 오셨을 때 심장을 도려내버린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심으로서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지를 보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장차 사울이 복음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환난과 수고가 어떠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1세기 복음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

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고전4:9~11),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11:23b ~27) 주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누리게 될 영광대신에 감당해야 할 고난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보다는 영광을, 펫박과 환난보다는 안정과 축복을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전도나 설교에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승리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제자의 길이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행14:22) 아나니아는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사울이 머물고 있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고 비로소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 졌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의 심방을 받고 주께로부터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얼마동안을 머물게 됩니다.(갈1:17) 사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동안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라비아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산 호렙, 혹은 시내산이 있는 지역으로서 미디안 광야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가리키는데, 최근에 이곳에서 시내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물던 흔적, 모세가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한 지역, 이드로의 마을 등이 발굴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곧 미디안 광야는 모세가 40년을 머물면서 광야훈련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광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의 계시를 더욱 깊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절기와 제사법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절기를 모르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부요함을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알게 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의의 심판을 알게 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복음의 근원이며 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복음의 계시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맡기신 율법과 언약들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언약들을 외면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뿌리 없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버린다면 복음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신흥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구약율법과 언약들 위에 세워졌으며, 구약 율법과 언약들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22~25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중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22~25) 구약성경에 능한 사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가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에 확신과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중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진리에 견고히 서려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 곧 구약성경에 밝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의 증거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당혹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혼란하게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의 증거를 듣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 고정관념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이 때 그들은 참된 진리에 이르고자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 종교적 기득권을 잃지 않고자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 피신하였습니다.

이상을 살펴볼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던 꽁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 하기 시작하자 그에게도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불같은 시련과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하고 박해하였으며 심지어는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 신자들을 박해하며 테러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2,000 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이토록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하며 박해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민구원의 비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복음이 이방세계로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민 구속계획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눈이 감겨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였다고 잘 못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들이 만든 유대교의 전통과 구전율법이 사람의 계명으로서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폐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유대교의 종교적 규례를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곧 토라

와 랍비들이 구전을 통해 전수한 미쉬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유대교의 전통 혹은 종교적인 규례인 미쉬나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혼동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야 믿음위에 서는 것이라는 모순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번째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박해 당하고 죽임 당한 역사 때문입니다. AD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유대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유대적인 것들을 철저히 배척하고 유대인들에게 개종을 강요하였고 출교를 자행하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는 유대인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잔혹한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유대인 박해는 이루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마저도 유대인들을 노골적으로 저주하며 박해하도록 하는 설교와 책을 냈습니다. 나치 독일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600 만 명이나 살육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당한 박해와 살육의 역사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반감을 갖게 되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굳게 빗장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과 함께 원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깊은 관심을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방인 구원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증거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6월 5일은 WMR가 열리는 주일입니다. 세계열방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방목자들이 선교현장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16년 WMR를 통해서 만민구속 역사에 우리 민족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음성으로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